

이슈 현장

지리산 내서댐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13일 구례와 하동을 잇는 섬진강변에 주민들이 내건 '지리산 내서댐 건설 반대' 플래카드를 한 주민이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환경1급지 파고든 토건공사 지리산·섬진강 생태 망친다

댐 밀도 세계 1위... 확보된 물 절반도 활용 못하는 실정  
물부족 탓 말고 효율적 용수 배분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연평균 408만명이 찾는 전국 제일의 단풍관광 명소 지리산 피아골 일대에 들어서는 내서댐의 가장 큰 문제는 섬진강 건전화 등 환경 파괴다. 세계에서 댐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이 더 이상 댐을 만들 곳이 없어 환경 1급지까지 파손하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댐을 잘 활용하면 여수·광양의 물부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댐의 물을 광주·전남에 공급하는 '용수 배분'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재배분한다면 어느 정도 물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댐 건설 반대=전남도가 최근 구례, 광양, 여수 등 지자체로부터 받은 내서댐 건설관련 시·군 의견을 보면 대부분 관련 지자체가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댐 후보지인 구례군은 ▲국립공원 훼손 ▲관광객 감소 ▲농특산물 생산 감소 등을 이유로 많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내서댐 용수 공급 혜택을 보는 광양과 여수도 댐 건설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광양시는 용수공급과 섬진강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하지만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내서천을 막으면 섬진강 하류의 수량 부족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섬진강 수계 광양지역에는 현재 8개 어촌계 500여명이 내수면어업 허가를 내고 재첩 등을 채취하며 살아 가고 있는데, 댐이 생기면 이들의 생계가 곤란해져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광양시는 섬진강 하류 수량이 부족해 바닷물이 현재 다얌면 섬진마을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얌면 신원리에서는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서댐이 생기면 섬진강 염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수시도 자연환경 변화와 농어촌 생산 감소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윤지옥 사무처장은 "이곳은 반달가슴곰과 수달이 사는 등 생태적으로 소중한 곳이다"면서 "섬진강의 지류를 막으면 섬진강의 생태 파괴도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물공급 계획부터 다시 짜야=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백지화 전국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대형

댐위원회 기준 높이 15m 이상 대형 댐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국토 면적 대비 댐 밀도는 세계 1위이다. 반면, "이들 댐을 통해 확보된 물의 절반 가량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개한 이 지역 지자체별 광역상수도 배분계획표를 살펴보면 물 배분량보다 실제 사용하는 물의 양은 턱없이 적었다. <표 참조>

광주의 경우 물 배분량은 하루 37만6000m<sup>3</sup>이었지만 지난 12년 평균 사용량은 22만4000m<sup>3</sup>에 불과했다. 목포도 배분량은 12만m<sup>3</sup>이지만 12년 평균 사용량은 6만m<sup>3</sup>이고, 함평은 배분량 3200m<sup>3</sup>에 평균 사용량은 621m<sup>3</sup>이었다. 나주, 화순, 영광, 장성, 함평 등이 지역 대부분 지역의 댐 배분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게는 5배 이상 과다 배정됐다.

광주와 전남 23시·도 중 배분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은 곳은 진도와 고흥뿐이며, 21개 시도는 사용량보다 배분된 물의 양이 더욱 많았다. 21개 시·도의 배분된 물 중 실제 사용되지 않은 하루 평균 물의 양은 44만6811m<sup>3</sup>에 달했다.

또 물이 부족하다는 여수, 광양 등지의 생활용수는 하루 5만7741m<sup>3</sup>이 더 배분됐고, 여수산단 배정물량도

### ■ 광주·전남 댐 용수 배분과 사용량

1. 주암 계통광역상수도 (단위: m <sup>3</sup> /일)		
구분	배분량	12년평균사용량
광주	376,000	224,141
목포	120,000	60,603
나주	73,000	17,093
화순	27,000	13,240

2. 대불공업용수도	
영암	57,500 / 18,227

3.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		
담양	8,300	2,889
영광	6,900	3,321
장성	11,600	4,306
함평	3,200	621

4.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		
목포	40,000	27,960
강진	9,100	1,951
무안	30,700	16,511
신안	5,400	4,331
영암	22,400	17,511
완도	7,600	5,658
장흥	15,200	7,331
진도	7,100	9,463
해남	9,600	3,231

\* 2013년 임시배분량: 진도 11,400m<sup>3</sup>/일, 무안 26,400m<sup>3</sup>/일

5. 광양공업용수도(1~3단계)		
여수	138,600	107,892
광양	74,300	47,267
순천	49,700	14,786
고흥	13,000	14,275
보성	5,500	3,646
(여수산단 등 배정물량)		
여수	485,700	
광양	307,600	795,000
순천	5,600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댐에서 각 지역으로 배분되는 물의 양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물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추가 댐 건설에 앞서 공급 용수 재분배를 통해 기존에 있는 댐의 물관리부터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엉덩이 아닌 허리 툭 쳤다” 윤창중 말바꾸기는 계산된 전략

美, 허리는 처벌 안받아... 미국법 전문가 도움 받은 듯

박근혜 대통령의 밤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핵심 진술을 반복해 구체적인 배경을 놓고 궁극점을 놓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피해 인턴 여성의 "허리를 툭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급거 귀국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시 피해 여성의 성추행 부위는 법률상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며 윤 전 대변인의 진술 반복은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진술 반복은 미국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이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를 "엉덩이가 아닌 허리"라고 말한 점,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 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처를 준 것"일 뿐이라고 한 점 등이 그 근거다. 발언을 종합하면 나름 '고도의 전략'에 따른 '계산된 진술'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과 만난 장소인 워싱턴DC는 행정 구분상 주(州)가 아닌 '특별구'로 연방법이 적용된다. DC 연방법(criminal code) 22-3006항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 부분을 보면 '허락없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180일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

체 부위를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이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시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청와대에서의 진술 내용대로라면 미국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로 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만진 신체 부위가 '허리'로 인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 연방법상 성범죄 중 가장 가벼운 '경범죄 성추행'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허리를 툭 쳤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의 '허리 툭 치' 주장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180일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

# 윤창중 '성추행' 당일 밤새워 술 마신 듯

목격한 취재기자들 "오전 5시까지 만취 상태로 호텔 돌아와"

박근혜 대통령의 밤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의 사고'를 일으킨 7~8일(현지시간) 밤새워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피해 여성 인턴과 워싱턴의 한 호텔 와인바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곧바로 돌아왔으며 "내일 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 아침에 모닝콜을 잊지 말고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당시 취재 기자들이 수렴했던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성추행 사건이 벌어질 때는 7일 오후 9시30~10시, 윤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10시 이후에는 숙소에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복수의 목격자들은 윤 전 대변인이 숙소로 돌아온 시간이 자정 이후 새벽계라고 전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이어 숙소 2층에 자리한 임시 행정실에서 현지 요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오전 3시까지 호텔을 나갔으며 다시 2시간여 후에 만취한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이 일부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다.

즉 7일 밤 10시 이후 적어도 6~7시간에 걸쳐 윤 전 대변인이 누군가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행

적은 불투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의 이날 일문의 행적이 드러난다면 '성추행 의혹'의 실제적 진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김중두



항사, 꽃가루, 미세 먼지로 간지러운 코

# 씻 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비염·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청결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지막/인두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점막 유지
- 용해편이/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인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상사용/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인용 하기의 일원비약품

※비염, 인두염, 인두염, 인두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항염·항균·항바이러스 효과  
용법·용량/생리·용량에 따라 1일 2~3회 비강점속하에 2회 투여하십시오.  
※연령, 증상에 따라 용량이 달라집니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알레르기 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 똥 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혈청제 - 트인 비액

- 비염·호기/코강기로 인한 점막 팽창과 충혈의 불만을 일관 수축으로 즉각적 효과를 발휘
- 중성식염수/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을 해소
- 용해편이/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인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상사용/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함부에만 작용하는 4인용 하기의 일원비약품

※비염, 인두염, 인두염, 인두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항염·항균·항바이러스 효과  
용법·용량/생리·용량에 따라 1일 4~6회, 양쪽 비강점속하에 2~3회 투여하십시오

코를 클린하자!  
**엔클 비액**

똥코를 프자!  
**트인 비액**

우리아이 코 건강에

학생의 코 건강에

직장인의 코 건강에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